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제2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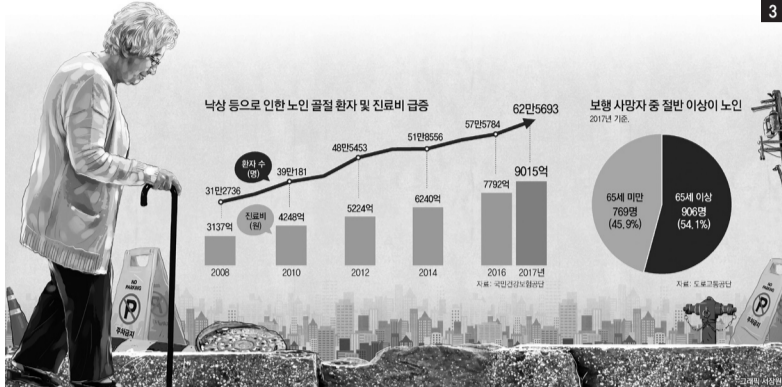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권해정(동아PDS)  
김민지(동아E&D)  
김석호(마케팅본부)  
김영현(AD본부)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구희인(출판국)  
남형주(재경국)  
박형순(동아에드넷)  
빈정훈(동아MD)  
양형모(스프츠동아)  
유성열(편집국)  
이정애(동아사이언스)  
이종원(문화사업본부)  
정기성(동아닷컴)  
정소림(경영지원국)  
조현성(동아프린테크)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8, 9월 동아일보는 규칙한 기획 시리즈를 잇달아 연재해 독자들에게 호평 받았다. 기사를 통해 사회 현상을 묘사한 용어가 시사상식사전에 등재된 <심 없이 뛰는 서울 집값> 시리즈(1). 독자 요청으로 시리즈를 연장한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 시리즈(2). 기자들의 생생한 체험으로 노인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적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시리즈(3). 추석 연휴 내내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새로 쓰는 우리예절 신예기(新禮記)> 시리즈(4).



## 차별화 시각과 탄탄한 취재, 동아 기획 돋보였다

### ‘서울집값’ ‘제조업 지켜라’ ‘노인위한 나라’ ‘신예기’ 독자요청에 시리즈 늘리기도

8, 9월 동아일보 편집국은 다양한 기획 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이며 사회 이슈를 주도했다. ‘동아’만의 차별화된 시각과 탄탄한 취재가 뒷받침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기사를 통해 사회 현상을 묘사한 용어가 시사상식사전에 등재됐고, 독자 요청으로 시리즈를 연장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생생한 체험으로 노인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적한 기사는 전 연령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  
동아일보 산업2부가 9월 4일부터 3회 시리즈로 연재한 <심 없이 뛰는 서울 집값> 시리즈를 기획한 건 부동산 기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말하는 일이 많아져서였다. 실제로 정부의 내부 통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그럴 만 했다. 서울 집값은 49개월 동안 줄곧 상승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이를 다룬 1회 기사는 출고 이후 연접뉴스를 비롯한 통신

사는 물론이고 각종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인용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주택 유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회 기사는 기사 조회수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 기사 조회수 합이 284만 회, 댓글 수는 1만9140개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아일보가 만들어 기사에서 제시한 신조어 ‘하우스 디바이드’는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등록되기도 했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일자리와 인프라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시리즈 마지막 기사 역시 집값 상승에 따른 여파를 다룬 시각에서 조명한 기획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 밀착형 취재로 공감대 이끌어내**  
8월 20일부터 10회 시리즈로 연재한 산업1부의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는 중국의 맹추격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내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국 전체 수출의 87%를 차지하는 8대 주력업종이 농

인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돌파구를 동시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대안 없이 위기만 부추기는’ 여타 기획 시리즈와는 차별화됐다. 취재팀은 8대 업종별 담당 산업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제조업 현장을 살살이 누비며 기업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았고 중국 전문가, 산업 전문가, 경제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대안과 의견을 구했다. 사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당초 8회 연재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조망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10회로 늘었다. **기자들이 직접 노인 체험** 정책사회부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기획 시리즈는 고령화 정책의 어려운 곳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했다. 기존 고령화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식의 생계 지원대책에 머물렀다.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좀 더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은 없었다. 한국 노인들에게 걸거리의 낙상 위험이 컸다. 10명 중 1명은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취재팀은 노인들과 함께 시

내 도로와 인도,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노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각종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 나섰다. 김윤종 기자는 노인생애장비를 착용하고 종로 일대를 3시간가량 돌아다니며 ‘노인체험’을 했다. 조건희 기사는 노인의 아파트에 하루 종일 머물며 관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위주로 준비했다. 노인에게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추석 연휴 뜨거운 화제 모은 ‘신예기’** 총 30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새로 쓰는 우리예절 신예기(新禮記)’ 시리즈의 대단원을 장식한 ‘추석명절편’은 추석 연휴 내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추석 상을 안 차리고 벌초도 대항에 맡겼다”는 퇴계 이황의 17대 종손인 이지영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의 인터뷰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명절 예법이 실제 유교 예법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당 기사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조회 수는 345만 건, 댓글은 851건이 달리는 등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편집국 산업2부 강성휘 편집국 정책사회부 김윤종

##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적극 실천하는 DAMG

### 채널A 3개 프로 특별 성과급 사기 진작, 긍정 분위기 전파

동아미디어그룹이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의미 있는 도전과 실적을 통해 성과를 냈을 때 확실한 보상을 함으로써 조직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런 긍정적 분위기가 다른 부서에 전파돼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널A는 8월 23일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하트시그널 시즌2> <나는 몸신이다> 등 3개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에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들 3개 프로그램은 2018년 상반기 정규 편성된 29개 프

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시청률 △수익성 △영향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먼저 시청률 측면에서 예능프로그램 평균대비 높은 2049 시청률과 누적광고시청률(GRP)을 기록했다. 수익성 면에선 매출에서 직접비(프로그램제작비, 자체제작 내부 인건비, 스튜디오 이용료, 매출대응수수료 등)를 차감한 공헌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미디어랩(SMR) 조회수 및 유튜브 조회수, 점유율(가구시청률 기준) 실적으로 평가한 영향력 면에서도 뛰어났다. 콘텐츠사업팀은 상반기 영업부서 성과 분석 결과 매출 증가율 및 공헌이익 규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또 미디어랩A는 8월 24일 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했다. 영업부문의 경우 팀별 매출목표 달성률과 개인목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은 <도시어부>, <하트시그널 시즌2>, <나는 몸신이다>(왼쪽부터).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미디어랩A는 향후에도 분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되, 인센티브 지급이 실적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직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급 방식과 규모 등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2016년 노사 합의로 연봉제를 도입한 동아일보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성과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수익과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서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 재미도 낚고, 기록도 낚고... '도시어부' 믿고 따라간 1년

## 목욕 가족예능 최강자 굳혀 게임 등 새 사업영역 개척도

채널A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이하 도시어부)가 9월 5일 방영 1주년을 맞았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도시어부>는 첫 방송 이후 자체 최고 시청률을 계속 경신해 지상파를 뛰어넘는 목욕 가족예능의 최강자로 자리 잡으며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의 새 이정표를 썼다.

###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예능 최강자

<도시어부>에는 수많은 기록이 따라 붙는다. 2017년 10월 5일 3.916%(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 5회 만에 동시간대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1위에 올라섰다. 또 올해 9월 6일 방송에서는 2049타깃 시청률 2.494%(닐슨 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채널A 역대 최고 타깃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지난 1월 25일 5.190%(전국 가구 기준)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등 채널A의 '효자 예능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다.



채널A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는 지상파를 뛰어넘는 목욕 가족예능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

2049타깃 시청률 2.494%  
채널A 역대 최고 기록

<도시어부>의 가치는 높은 시청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어부>는 콘텐츠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면서 채널A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낚시'란 소재에 예능, 여행, 먹방 등을 결합시킨 신개념 버라이어티로 여성과 젊은층의 관심까지 끌어 모았다. 나이를 초월한 이덕화, 이경규, 마이크로닷의 특급 케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했다. '고기를 잡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감정이 느껴진다. 내가 고기를 잡은 것 같다', '고기를 기다릴 때의 그 간절함이 전해진다' 등의 반응이 매회 방송마다 줄을 잇고 있다.

<도시어부>의 센스 있는 자막과 편집에 열광한 젊은 시청자들은 디지털 공

간에서 각종 짤(방송캡처)을 재생산하며 <도시어부>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새로운 게스트들은 등장할 때마다 매회 화제를 일으키며 인기 검색어와 포털을 뜨겁게 장식했다. 특히 게스트로 출연했던 배우 홍수현 씨는 방송에서 마이크로닷과 '쌈'을 타다가 실제 커플이 되면 화제가 됐다.

<도시어부>의 가치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다. 8월 30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4개와 지상파 3개, 케이블 2개에서 방영한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33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도시어부>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손질한 참돔을 요리하는 8월 5일 방송장면을 대표적인 성평등적 내용으로 선정했다. 요리는 여성의 일이라는 그릇된 가사분담 인식을 깬다는 것이 이유다.

###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

<도시어부>는 채널A의 콘텐츠 자산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며 높은 공헌이익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 업체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9월 6일 게임 개발사 퍼플오션과 함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어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다. 퍼플오션은 2015년 낚시 장르 게임 중 최단 기간 5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피싱혹'을 개발한 업체다. <도시어부>를 통해 알려진 다양한 국내외 낚시 지역을 게임 속에 실사와 가깝게 구현하고, 이용자들이 실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된 낚시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지난 6월에는 낚시용품 전문기업 스마트피싱과 함께 낚시용품세트 '도시

채널A 콘텐츠 자산  
수익으로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



## 드라마 '열두밤' 전파도 타기 전 방영권 판매계약

### 아시아 최대 콘텐츠마켓서 미국-일본 바이어들과 사전계약 체결

전 세계 50개국의 200개 기업이 참여한 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 '제18회 BCWW 2018(방송영상콘텐츠마켓)'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채널A는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들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콘셉트의 단독 부스를 제작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방영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열두밤>이 갖고 있는 설렘 가득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위해 <열두밤> 대형 포스터들을 부스 곳곳에 노출시켰다.

올해 행사에선 다수의 방영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채널A가 6년 만에 선보이는 드라마 <열두밤>은 미국과 일본 바이어들과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온라인VOD플랫폼의 담당자는 "서울이 생소한 두 남녀의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듣고 기획 단계부터 흥미를 가졌던 <열두밤>을 서비스하게 되어 기쁘다. 벌써부터 설렌다"고 말했다. 일본 제작사 관계자 역시 "겨울연가에 이어 또 한번 한류 로맨스의 시작이 될 것 같다"며 <열두밤> 계약 체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채널A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BCWW 2018'에서 세련되고 깔끔한 단독 부스를 제작해 해외바이어들과 콘텐츠 판매 상담을 진행했다. 드라마 <열두밤>이 갖고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열두밤> 대형 포스터들을 부스 곳곳에 노출시켰다.

그밖에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권역의 바이어들이 <열두밤> 콘텐츠 구매의사를 밝히는 등 방영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국민 씬 예능' <하트시그널>의 인기는 여전했다. 중국의 한 최대 동영상 플랫폼은 종영된 <하트시그널 시즌1>, <하트시그널 시즌2>와 함께 아직 제작 전인 <하트시그널 시즌3>의 전송권도 사전계

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채널A는 해당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 스타들이 해외 흡수평에서 대한민국 우수 제품 완판(완전판매)에 도전하는 <팔아야 귀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동남아시아 권역의 바이어들은 "소재가 신선하고 출연자들의 조합이 흥미롭다"며 계약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 이우진

## "'비토우' F/W시즌 컬렉션 나왔어요"

### 채널A 패션브랜드, 라인업 구성



채널A의 패션 브랜드 '비토우(Be.T.ow)'의 F/W 시즌 컬렉션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

채널A의 패션 브랜드 '비토우(Be.T.ow)'가 9월 19일 F/W(가을/겨울) 시즌 컬렉션을 출시했다. 1차 라인업은 '스웨트 셔츠'와 '후드 티셔츠' 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즌의 콘셉트는 '결정적 순간(A Decisive Moment)'이다. 성별과 역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절정의 순간을 예술적인 프린트와 레터링, 패

치 장식이 담았다. '유니섹스'와 '젠더리스'라는 현대의 흐름을 반영해 더욱 감도 높은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종이신문에 인쇄된 보도사진 느낌의 이미지 패치가 자수로 박혀있는 것이다. 'We all have the same guts,' 'we just wanted to be loved'와 같이 남녀평등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레터링으로 멋을 더했다. 비토우 로고, 슬로건 등 컬렉션 전반에 사용된 모든 레터링은 드로잉 작가 정성희 씨와 협업했다. 정 씨는 '정오(Jeongo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다.

제품 구매는 채널A의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오티티닷컴'(shop-ott.com)과 '무신사', '힙합퍼', '플레이어' 등 패션 전문 온라인몰에서 가능하다.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은 오티티닷컴에서 구매할 경우 30%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널A 콘텐츠사업팀은 이번 F/W 시즌의 아티스틱한 무드를 포인트로 향후 'W concept' 등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편집샵 등으로도 판매처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셔츠, 코트, 예코백 등으로 구성된 2차 라인업은 10월 중순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 이시경

# “문화-역사 공부를 함께” 경매의 새 지평을 열다

### ‘동아옥션’ 제3회 경매 열려 근현대사 자료 등 215편 여러 주제 다루며 호평 온라인 경매로 영역 넓혀



9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8층에서 열린 제3회 동아옥션에 참석한 예술품 애호가들이 경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동아이지메뉴와 고서향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동아옥션’의 제3회 경매가 9월 12일 오후 동아옥션 갤러리(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8층)에서 예술품 애호가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번 경매에는 △근현대사 자료 64품 △‘해어화(解語花)’에서 시대를 읽다’는 주제로 출품된 기생 관련 예술품 18품 △한국의 인형들 34품 △근현대 미술품 35품 △고서화와 서적 27품 △서적 35품 △농업자료 특별전 2품 등 고전 문화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총 215품의 물품이 세상에 나와 예술품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 근현대사 자료 관심 높아

12일 경매 현장 응찰대에 오른 물품 중에선 특히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동아옥션이 지난 1회 경매 때부터 다른 예술품 경매 현장에선 볼 수 없는 근현대사 자료들을 내놓았던 만큼 이번에도 근현대사의 질곡을 훑아볼 수 있는 방대한 자료들에 예비 응찰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독립운동가로서 굳건한 의지와 신념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아 경매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박열(1902~1974)의 친필 편지는 이날 경매 현장에서 700만 원에 낙찰됐다. ‘독립’, ‘자주’, ‘자력’, ‘자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독립운동에 투신한 열사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인애국단의 태극기는 500만 원에 낙찰됐다.

1회 경매 때부터 좋은 반응을 이어 온 미술품 낙찰도 잇따랐다.

12월 열릴 제4회 경매는 3.1운동-임정자료가 테마



제3회 동아옥션에 출품된 ‘춤추는 여인’(1929년 제작) 인형.

중국 문화예술연합회 부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탕문기 화백의 추경산수화는 7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고,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린 거장 마르크 샤갈의 서커스 공연 판화는 경합 끝에 460만 원에 낙찰됐다.

#### 온라인 경매 도입해 입지 넓힌다

세 번의 경매를 치른 동아옥션은 예술품 경매 관계자들로부터 “차별화된 기획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사료를 주제별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열린 2회 경매에선 한국전쟁, 기생 관련 기획 자료가 대거 출품돼 많은 문화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3회 경매에선 개화기에서 현대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한국 인형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인형들을 비롯해 조선시대 농서(農書)부터 1970년대 식량증산 포스터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다채

로운 농업 관련 자료들이 출품된 바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경매의 흡입력을 더하고 있다는 평이다.

동아옥션은 앞으로 열릴 경매에서도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 예술품 경매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2월 열릴 제4회 경매에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을 엮어 하나의 테마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동아옥션은 1년에 네 번 열리는 오프라인 경매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품 경매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 경매를 최근 도입했다.

고서적이거나 미술품, 근·현대자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아옥션 온라인 전용 경매 사이트(<http://www.dauction.kr/auction>)를 통해 손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예술품 경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동아옥션의 입지를 한 단계씩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아이지메뉴 에듀동아팀 김수진

### 광화문 사거리에서 발걸음 멈추게 한 ‘영망’



서울 중로구 광화문 사거리 일민미술관 외벽에 내걸린 ‘영망’ 대형 현수막.

#### ‘영망인 책상, 영망인 하루...’

많은 젊은이들이 “영망인 오늘의 나”를 비춘 현수막에서 자화상을 발견한다. 2018년 늦여름, 광화문 사거리 일민미술관 외벽 대형 현수막을 가득 채운 ‘영망’이라는 두 글자가 SNS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1월 25일까지 진행 중인 전시 ‘영망’은 대중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방대한 수집력으로 유명한 Sasa[44] 작가의 개인전이다. 작가가 20년 동안 편집중적으로 모은 물건을 이용해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문화를 통찰적으로 엮은 아카이브에 기반 한 전시다. 10년 동안 자신이 먹은 자장면의 그릇 수, 교통카드를 찍은 횟수처럼 보통 사람들이 쉽게 버리고 망각하는 삶의 흔적들을 방안 가득 쌓아놓고 저장한다. 그의 수집 강박은 나름의 순서와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오늘 나의 ‘영망’인 상태를 오류라고 쉽게 단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 어수선한 상황, 영망인 내 삶은 주위에 산적한 문제들을 둘러보게 한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영망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

일민미술관 학예실장 조주현

## 동아 재테크-핀테크 쇼에 1만3000여명 다녀가

### ‘부자증세 시대의 전략’ 주제 기업 70여 곳 237개 부스마다 성황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9월 11,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자증세 시대,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핀테크와 재테크의 새로운 흐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활황과 뚜렷해진 증세기조로 이틀간 관람객 1만3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행사 개막식에는 정계와 금융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국내 최고의 금융산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콘텐츠(Contents)로 발전하는 ‘ABC 코리아’에 큰길길 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70여 곳은 237개 부스를 차리고 관람객들을 맞았다. 정부가 혁신과제로 삼고 있는 핀테크가 생체인증,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소개됐다. 재테크에 도움이 될



9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 금융권 고졸 채용 특강을 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벤트에 참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각종 금융상품도 선보였다. 특히 부동산, 주식투자, 자산관리, 세무 등 분야별 ‘스타 재테크 강사’ 10명이 릴레이 강연을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내내 강연장 500여 석이 꽉 찼고 서서 듣는 관람객들도 상당했다. 국내 주요 은

행과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크(PB),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등 전문가가 50여 명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은 행사 전에 일찍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편집국 경제부 조은아

## 기사발제, 이젠 폰으로

9월 5일부터 동아일보 집배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제와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동아닷컴 CTS팀은 기존에 있던 PDF 조회 앱에 발제 등록 및 조회 기능을 추가한 발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노트북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제를 보내 취재 현장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동아닷컴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단축 URL을 휴대전화 브라우저에 실행시키고,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한다. 6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접속하면 직접 발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을 마친 뒤 ‘집배신 전송’을 누르면 된다.

앱에는 STT(Speech To Text) 기능이 포함돼 휴대전화 마이크를 켜 뒤 음성으로 발제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자판에 글을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하다.

사용 초기인 지금은 발제 입력 보다는 조회를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취재기자는 물론 편집자, 그래픽 기자 등이 이동 중에 발제를 보고 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을 미리 구상하기 때문이다. 동아닷컴은 사용자들로부터 모바일 발제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향후 기능 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동아닷컴 CTS팀(2020-1911), 동아닷컴 CTS팀 오준선

#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 동아일보·채널A 신입·경력 입사자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② 최종 직장/학교    ③ 입사 후 포부    ④ 요즘 관심사



**송혜미**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한양대 정치외교학/사학
- ③ 바늘 끝이 떨리지 않는 나침반은 더 이상 나침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민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조카가 태어난 지난해 여름 이후 미래세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에어콘을 틀지 않고 손수건과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이윤태**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연세대 사학
- ③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겠다.” 제 좌우명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는지를 생각하며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 ④ 마라톤 등 유산소 운동 좋아합니다. 수습이라는 한계를 넘은 후에는 오랜 로망이었던 마라톤 완주를 꼭 하고 싶습니다.



**김민찬**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1년
- ② 서울대 미학
- ③ 세세한 사람이 될 것. 인턴활동 당시 한 선배께 들었던 말입니다. 현장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세한 사람으로서 보고 듣겠습니다.
- ④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걷고, 달리면서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정확하고 차분한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지연**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1년
- ② 고려대 한문학/경제학
- ③ Do N(land) Again. 인턴 활동하면서 제 DNA라고 소개했던 문구입니다. 늘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말 걸고, 한 번 더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뷰니멀(view+animal) 족입니다. 동물을 키울 환경은 안 되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가리지 않고 귀여운 동물 계정을 섭렵하는 중입니다.



**한성희**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한양대 경영학
- ③ 10년 뒤에는 데스크가 취재를 믿고 맡기는 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순간도 일을 ‘대충’하는 기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④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라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배들이 지면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저널리즘을, 늘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진**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 ① 1984년
- ② 경인일보 정치부
- ③ 현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사건 이면의 진실을 취재하고,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신문 만들 수 있도록 선배들과 소통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④ 5개월 된 둘째가 귀엽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은 물론 여행 및 나들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영준** / 채널A  
제작본부/수습PD

- ① 1992년
- ② 경희대 연극영화학/정치외교학
- ③ 솔직히 쿨하고 근사한 PD는 자신 없습니다. 대신 뜨뜻하고 우직한 PD가 되겠습니다. 채널A를 정년퇴임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④ 얼마 전 포켓몬 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습생활을 시작하며 포켓몬고와 작별을 고하지만 포켓몬들에게 배운 피디 정신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박성은** / 채널A  
제작본부/수습PD

- ① 1992년
- ② 고려대 미디어학
- ③ 교도의 이자카야에서 ‘枝豆’, 우리말로 풋콩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없으면 입이 심심한 풋콩처럼, 팀에서 기본 안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 ④ 요즘 관심사는 나플라. ‘mmm’이란 노래에 꽂혀 몇 달을 들었는데, ‘쇼미’에서 처음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황현희** / 채널A  
제작본부/수습PD

- ① 1993년
- ② 성균관대 경제학/영상학
- ③ 우선은 최선을 다해 선배님들께 배우고 경험하며 방송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 ④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30대 언니들 두 명에서 토크 하는 프로그램인 <독일언니들>을 추천해줬습니다. 두 언니들을 모시고 스탠드 업 코미디쇼 만드는 그날까지, 나의 새벽은 언니들께 모두 바치려.



**공태현**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경영학
- ③ 진한 여운이 남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 향도 나질 않지만 동아미디어그룹에서 차차 저만의 향이 나는 기사를 써 내리고 싶습니다.
- ④ 명륜동 자취방에서 3년째 고슴도치와 동거를 하며 살았지만 입사 후 밥만 주고 사육시킬 환경이 미안했습니다. 최근엔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설득 중입니다.



**박선영**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숙명여대 미디어학
- ③ 매일 성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함께 일하고 싶은 기자이자 따뜻한 기자입니다.
- ④ 여름에 못다 한 서핑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여름 인턴 활동을 마친 뒤, 강원도에서 서핑을 처음 배웠습니다. 서핑하다 발가락 한쪽이 찢어진 것도 모를 정도로 즐겼습니다.



**여현교**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이화여대 사회학/언론정보학
- ③ 제 이름 여현교의 ‘현’ 자는 한자로 ‘술귀 현’ 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뜨거운 술의 손잡이가 없으면 술을 들 수 없어 꼭 필요하듯, 저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름대로 살기 위해 많이 배우고 겸손하겠습니다.
- ④ 집이 수원이라 강남 근처의 방을 찾고 있습니다.



**염정원**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89년
- ② 인하대 정치외교학
- ③ 앞으로 수습기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끈기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일본여행입니다. 2014년 일본을 간 이후로 2018년 9월까지 총 25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의 가보지 못한 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수연**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서울대 독어교육학
- ③ 항상 ‘살아있고’ 싶습니다. ‘모든 게 흥미롭고 매일이 색다르고 궁금한 게 많은’ 채널A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마포구에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고기가 맛있는 동네라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또 EDM 음악도 관심이 많아 출퇴근길 신나는 EDM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몸 속 열을 내려주는 ‘오리탕’ 만드는 법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거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비염 증상이 심해집니다. 대부분은 비염을 ‘감기처럼 알고 지나가는 병’이라고 생각해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을 방치할 경우 중이염,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체에 열이 과다할 경우 비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머리 위로 올라간 열이 내려오지 못하고, 콧속 혈관을 확장시켜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몸속에서는 몸 속 열을 내려주는

‘오리탕’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생오리 1마리(중 사이즈), 감자 5개, 양파 1개, 마늘 6알, 5cm 크기 생강 하나, 물 4리터, 천일염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이 끓으면 모든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 센 불에 15분 끓입니다. 이후 뚜껑을 덮고 1시간 30분 더 끓여줍니다. 오리와 야채를 건져낸 뒤 누룽지를 넣고 죽을 끓여먹어도 별미입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ichannela.com)를 통해 자세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안주영



① 생오리 1마리(중 사이즈), 감자 5개, 양파 1개, 마늘 6알, 생강(5cm 크기), 물 4리터, 천일염을 준비합니다.



② 냄비에 물 4리터를 넣고 물이 끓으면 생오리와 감자, 양파, 마늘, 천일염 등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습니다.



③ 뚜껑을 덮지 않고 센 불에 15분 끓인 후, 뚜껑을 덮고 1시간 30분 더 끓여줍니다.



④ 오리와 감자, 국물을 찹시에 담으면 완성됩니다. 양파와 생강은 건져낸 후 남은 국물에 누룽지를 넣어 죽을 끓여도 좋습니다.